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지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楸泰

編輯人兼主幹 韓鍾仁

印刷人 裴成漢

1976년 11월 1일 창간

제 262 호

(우: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0, 602호 (내수동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www.cheongjuhan.net

Tel : 720-6370~1 Fax : 720-9215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 2019년 己亥年 시조 위양공부군 세향 성황리에 봉행

시조세향은 세세손손 연면히 이어나갈 청주한문의 아름다운 가업  
경향 각지에서 남녀노소 1,500여 명의 후손들 참사

초헌관 唱燮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아헌관 正植제주도회장  
종헌관 東暻부산사회장



좌로부터 추태회장, 창섭부지사, 정식회장, 동경회장

중앙종친회(회장 楸泰)는 지난 10월 28일 (음력 10월 1일, 월요일) 오전 11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위치한 시조부군 묘역(충북기념물 제72호)에서 1,500여 명의 일가들이 참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2019년도 기해년 시조부군의 세향 제례를 엄숙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특히 청장년층을 비롯해 가족과 단체단위의 남·여 후손들이 많이 참사하였으며 질서정연하게 행사를 마쳤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더욱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에 더해 당일 참사한 일가분들은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가들과 함께 꼭 참석하겠다는 다짐으로 한결 같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었다.

초헌관에는 창섭(唱燮)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아헌관에는 정식(正植)제주도회장, 종헌관에는 동경(東暻)부산사회장이 각각 분방되었으며 동역(東億)자문위원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제관 분방 2명)

우리 청주한씨의 시조(諱 蘭)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서기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이듬해 평양을 정치기반으로 삼기위한 첫 사업으로 평양성을 쌓게 되었는데 그 막중한 소임을 맡아 태조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를 쌓았고, 928년(태조 11년)에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하기 위해 청주지역을 지날 때 10만 정벌군에게 군량을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종군까지



시조부군의 세향 제례가 엄숙하게 봉행되고 있다

하여 전공을 세운 공로로 최고의 품계(品階)인 삼중대광개국벽상공신(三重大匡開國壁上功臣)에 녹훈되었고, 벼슬은 정일품 문하태위(門下太尉·오늘날의 국무총리급)에 올랐으며 한 시대의 사표로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시고 서세하시어 지금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가산리에 안장되시니 나라에서 위양(威襄-천지는 신묘(神妙)한 위광(威光)으로 강산의 기이(奇異)함을 만들고 영웅(英雄)의 자품을 타고나서 나라의 훈업을 이루었다)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벽상공신(壁上功臣)이란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후 서기 940년(태조 23년)에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고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세우면서 공신당의 양쪽 벽(壁)에 고려의 개국공신 중에서도 특별히 큰 공을 세운 공신 30명의 초상(肖像)을 그려 넣으면서 비롯된 호칭이다.

속리산맥을 타고 내려와 황간 땅에 이르러 우뚝 솟은 지장영봉(芝庄靈峰)은 사위(四圍)를 거느리고 멀리 백리에 뻗쳐 영기(靈氣)가 모였으니 이곳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永同郡 黃澗面 蘭谷理)에서 당대의 위인으로 탄생한 시조 위양공(威襄公)께서는 일찍이 청주로 이주하여 방서동(方西洞)에서 용개(龍開)평야를 개척, 큰 부호가 되었으며 무농정(務農亭·1990년 12월 14일 충북기념물 제85호로 지정)을 세워 향학(鄉學)을 일으켰다.

추태중앙회장은 세향봉행에 앞서 진행



추태중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된 식전행사 인사말을 통해 금년 역시 경제 불황과 기상이변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오늘 시조부군의 세향봉행일을 맞아 경향각지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참사해주신 많은 일가분들을 뵈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한 후 이곳 시조부군의 묘소는 전국 8대 명당 중 으뜸인 곳이지만 처음부터 순조롭게 보전되어 온 것은 아니다. 시조부군의 묘소가 여러 세란 등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실호됨에 선조님들이 애석한 마음으로 단과 비를 세워 매년 세일제(歲一祭)를 받들었고 묘재(墓在)가산이라는 문헌을 참고로 평안도가산, 회인 가산 등 같은 지명을 두루 살펴 보았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다가 숙종조인

1680년대 후반에 묘하 민가에 살던 한모(韓某)로부터 동리에 사는 노(盧)가가 태위공 산소 봉분을 파괴하고 묘갈은 중단(中斷)하여 우물바다에 묻은 후 산소 전 후면에다 투장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즉시 방서동에 여명공(姪溟公) 후손인 성헌(聖憲)에게 소상하게 알렸고 이를 계기로 청주병사(淸州兵使)로 재임 중이던 후손 근(根)과 더불어 가산(駕山)에 달려가서 조사하고 제소하여 태위공(太尉公) 묘(墓)임을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그 후 묘역을 개봉축(改封築)한 후에 표석(表石)을 세우고 지석(誌石)을 매장(埋藏)하였으며 제전(祭田)과 묘직(墓直), 재실(齋室) 등을 차례로 조치하였으며 1768년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2면으로 계속〉

# 4위 선조 기해년 세향 봉행

##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초헌관 任東(월포공종중)  
 아헌관 根峻(충지공종중)  
 종헌관 春燮(문정공종중)



좌로부터 임동초헌관, 근준아헌관, 춘섭종헌관



4위(2세·3세·4세·5세)선조의 세향 봉행

지난 10월 28일(월) 시조부군 세향봉행에 이어 시조묘역 내 4위단에서 2세, 3세, 4세, 5세선조를 추모하는 4위 선조의 기해년 세향이 봉행되었다. 초헌관에 임동(월포공종중), 아헌관에 근준(충지공파회장), 종헌관에 춘섭(문정공파종중)일가가 각각 분방되어 상옥(고창군회장)일가의 집례로 엄숙히 봉행되었다. (제관분방 별항)

당일 세향을 봉행한 4위 선조는 시조 하 2세 용호군 교위공 휘 영(龍虎軍 校尉公 諱 穎), 3세 별장 동정공 휘 상휴(別將 同正公 諱 尙休), 4세 상의 직장공 휘 혁(常衣 直長公 諱 奕), 5세 신호위 상장군 휘 희유(神虎尉 上將軍 諱 希愈)이다.

4위 선조는 오랜 풍상과 겹치는 세란(世亂)으로 오직 휘자(諱字)와 직함만이 보책(譜冊)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을 뿐 유택(幽宅)이 실전(失傳)된 연도도 알 수 없었고 배위(配位) 또한 실전되어 성(姓)씨마저 전해지지 않아 1985년도부터 시조묘역 내 세일재 좌편에 4위단을 모시고 매년 시조세향일에 세향을 봉행하고 있다.

1985년 4위 추모단을 시조묘역 내에 모

시기 전까지는 전남 영광에 모신 6세조 예빈경공(禮賓卿公·諱 光胤)의 추원재(追遠齋)에 4위 신위(神位)를 모시고 예빈경공의 세향 봉행에 앞서 제례를 올려왔었다.

### 시조세향 제관 분방

- 初獻官: 唱燮 충북부지사
- 亞獻官: 正植 제주도회장
- 終獻官: 東暻 부산시회장
- 執禮: 東億 자문위원
- 大祝: 到榮 제전부장

- 謁者: 泰洙 문열공파
- 陳設: 炳雄 충성공파
- 司樽: 澤永 문정공파
- 左奠: 暢洙 문열공파
- 右奠: 明燮 참판공파
- 左奉: 鍾浩 문정공파
- 右奉: 甲傳 문정공파
- 執事: 基泰 정혜공파

### 4위단 제관 분방

- 初獻官: 任東 월포공종중
- 亞獻官: 根峻 충지공파회장
- 終獻官: 春燮 문정공파종중
- 執禮: 相玉 고창군회장
- 大祝: 東勛 무농회장
- 右奠: 甲傳 문정공파

- 左奉: 在澤 참판공파
  - 右奉: 東鎭 문정공파
  - 司樽: 相賢 양혜공파
  - 執事: 魯東 이랑공파
- 이하 동일

### 산신제 제관 분방

- 獻官: 泰洙 충성공파
- 祝官: 東權 참판공파
- 執事: 相賢 양혜공파

### 사무처 및 지원

- 接受: 一鎔 참판공파·相烈 문양공파
- 到記: 範錫 서울시·聖愚 충성공파
- 앰프: 成益 문정공파
- 차량/질서: 두환·재호(청주)

## 세향 후 많은 일가들 '청한각' 참배 및 '뿌리공원' 견학

### 청장년·청소년 후손들과 뜻 깊은 시간

세향을 마친 후 많은 일가들은 각 종파문중과 지역종친회별로 버스 또는 승용차를 이용 젊은 후손들과 함께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 위치한 시조탄

생유지를 성역화한 청한각과 뿌리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청주한씨 성씨조형물을 둘러보면서 뜻 깊은 일정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 <1면에 이어>

많은 선조님들의 공로로 시조묘역을 수호하고 제례를 봉행하며 보전해오고 있지만 특히 청주에 세거 중인 여명공문중 선조님들과 일가분들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조묘역 진입로 인근에 공군비행장이 들어와 시조묘소가 가장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시기도 있었다.

마침 충북도청에 재직 중인 흥구일가가 앞장서 종헌들과 힘을 모아 결사반대하여 비행장의 설계를 변경하여 현재까지 보전해오고 있다. 흥구일가의 노고와 공로에 큰 박수로 감사표와 독려한 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조이신 휘란(諱 蘭)을 비롯 훌륭한 선조님들의 고귀한 업적과 유지를 기리는 한편 유적 또한 잘 받들고 보존해야 한다.

종사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훌륭한 후손들로 하여금 찬란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갈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고귀한 유산을 받들고 더욱 계승 발전시켜나감은 물론 시조세향은 청주한문의 후손들로 하여금 세세손손 연변히 이어나갈 아름다운 전통과 가업으로 기리 보존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큰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바란다.

중앙종친회는 앞으로도 무강왕릉의 수호보전과 장학사업 활성화 등 주요종사를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시조부군 및 4위 선조님의 세향 봉행이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일가분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창설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청주한문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매사 신중을 기하면서 도정에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전위원 및 전국 청장년 일가 등 30여 명

### 세향 준비 및 진행 자원봉사

1,500여 명의 후손들이 참사(參祀)한 2019년도 기해년 시조세향 및 4위 선조(2·3·4·5세) 세향이 차질 없이 질서정연하게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엄숙하게 봉행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전준비와 세향 당일의 안내, 질서유지 등 진행을 도운 30여명의 제전위원 및 서울, 경기, 청주 등 각 지역과 종파문중의 일가들과 일부 임원들의 희생적인 자원봉사가 있었다.

중앙회 집행부의 지원을 받은 30여명은 세향일 하루 전에 현지로 내려가 재실 별채에서 숙박을 하면서 세향이 끝날 때까지 청소 정리 및 천막설치, 도포와 예복관리, 앰프설치 및 관리, 차량 출입통제용 차단기 설치 및 잡상인 통제, 현성금 접수대 설치 및 접수, 현수막 설치, 묘역 진입로 삼거리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의 도로에 대형버스 주차유도, 시조세향 예행연습, 행사 후의 정리 정돈 등 사전 준비와 진행, 마무리

를 위한 업무를 분담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끝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집행부와 일가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칭송을 받았다.

### 자원봉사 일가

동역, 성우, 동훈, 태수, 범석, 도영, 현수, 일용, 상렬, 대석, 성익, 택영, 종호, 병웅, 동권, 갑전, 윤수, 창수, 명섭, 재택, 동진, 상현, 창하, 두환, 기태, 노동, 복연, 재호, 상분, 영자, 순자, 옥분, 금순, 혜숙, 지숙 (무순·직함생략)



조경수목을 정비 중인 택영, 성익일가

# 시조세향에 132명, 2,385만원 헌성

정식제주회장 300만원

추태회장 · 승수총리 · 갑수명예회장 · 동경부산회장 각각 100만원

지난 10월 28일에 봉행된 시조 세향에 정식제주도회장 300만원, 추태중앙회장, 승수 전총리, 갑수명예회장, 동경부산회장께서 각각 100만원, 임동월포공종중이사가 90만원을 헌성하는 등 132명의 일가들이 2,385만원의 성금을 헌성하였으며 충성공과 선교회장은 시조세향에 올리는 제주로 민속주를 헌성하였다.

헌성해주신 일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향헌성금		단위: 원	
이름	금액	이름	금액
제주도총친회(정식)	3,000,000	부산영도구총친회	100,000
갑수 명예회장	1,000,000	부천시총친회(종옥)	100,000
승수(제39대 국무총리)	1,000,000	사속공추모회(규동)	100,000
추태 중앙회장	1,000,000	서울시총친회(광수)	100,000
동경(부산시총친회장)	1,000,000	성동.광진구총친회(수창)	100,000
임동(월포공종중)	900,000	세마공노산종중(상우)	100,000
근준(참의공(회충지)파종중회장)	500,000	양절공파주부공종친회	100,000
청한산악회원일동	500,000	양해공파종중(치용)	100,000
문간공파종중(동수)	300,000	여명공파종중	100,000
문간공하참판공종중(상량)	300,000	영암군총친회(기동)	100,000
참의공파안산종중	300,000	완주군총친회(재근)	100,000
청한예학회	300,000	원주시총친회	100,000
회양공파종중	300,000	월포공종중(광구)	100,000
삼량(청한산악회장)	300,000	익산총친회	100,000
광전(경기도총친회장)	200,000	장현공문중(길우)	100,000
경기도총친회원일동	200,000	정당공파계일종중	100,000
남해군총친회(창영)	200,000	진주시총친회(규학)	100,000
대구경북총친회(태락)	200,000	찬성공파종중	100,000
대전시총친회(갑수)	200,000	천안시총친회	100,000
문양공파종중	200,000	청주한씨종중밴드(기태)	100,000
문열공파종중(기천)	200,000	충주시총친회	100,000
문정공파문중(석구)	200,000	평간공파봉찬회	100,000
부산시총친회(동경)	200,000	평택봉사공파종중	100,000
삼재관리위원회(철호)	200,000	평택삼등공하옥천공파종중	100,000
충성공파역삼동종중(등희)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	100,000
영덕군총친회	200,000	평해공파수원종중560여성회원일동	100,000
인천광역시총친회	200,000	화성시삼괴총친회	100,000
전남장성군총친회	200,000	갑전(처사공파)	100,000
전북도총친회	200,000	경석(서울 강남구)	100,000
진도군총친회	200,000	근수(충남 청양군)	100,000
참의공파종중(상기)	200,000	기달(서울 강북구)	100,000
첨정공파수원노림익상종중	200,000	기덕(충남 당진시)	100,000
청원위파종중(상영)	200,000	기만(서산시총친회)	100,000
서울청장년회원일동	200,000	노동(이조정랑공파)	100,000
충북도총친회(장훈)	200,000	대석(청한산악회)	100,000
충의공종중(찬규)	200,000	동협(경기 평택)	100,000
현령공파문중(기일)	200,000	병준(서울 관악구)	100,000
서원군파종중(길수)	200,000	상남(청한산악회)	100,000
영수(전 검교참판공파회장)	200,000	상분(경기 수원시)	100,000
현수(중앙회조직부장)	200,000	상웅(참의공니주종중)	100,000
강릉총친회	100,000	상호(경기 연천군)	100,000
강북도봉종친회(상남)	100,000	예진(충성공파)	100,000
강화총친회(영선)	100,000	우석(참의공 영광)	100,000
검교참판공파종중(진수)	100,000	의구(병철교위공파회장)	100,000
경남총친회(만준)	100,000	일용(연기현감공종회총무)	100,000
공주시총친회	100,000	재국(강화 판사공파)	100,000
관악구총친회원일동	100,000	정조(강북도봉총친회)	100,000
광주광역시총친회	100,000	창섭(충북 부지사)	100,000
구미시총친회	100,000	철수(전 중앙회감사)	100,000
금산군총친회	100,000	춘섭(청한예학회)	100,000
김포시총친회	100,000	태호(인천 동계공파)	100,000
나주시총친회	100,000	회인.종호(문정공파)	100,000
논산총친회(광석)	100,000	고창군총친회(상옥)	50,000
등계공파종중(용인시)	100,000	목사공휘정부파종중(홍수)	50,000
마포총친회	100,000	신탄진총친회	50,000
문경공대총회	100,000	아산시총친회(성규)	50,000
문정공파참판공파안산반월종중	100,000	팽성읍총친회	50,000
문정공하참판공종중(연동)	100,000	경(인천 판사공파)	50,000

## 충성공(諱 明澮, 14世)부군 기해년 세향 봉행

충성공파종중(회장 선교)은 지난 10월 29일(음, 10월 2일) 충남 천안 수신면소재 충성공 부군 묘소에서 선교회장을 비롯 종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해년 세향 제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에는 기천(문열공파회장), 아헌관에는 경(판사공파), 종헌관에는 등희(충성공파역삼종중회장)일가가 각각 분방되었으며 도영중앙제전부장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충성공(諱 明澮, 1415년 10월~1487년 11월)은 조선시대 전기의 문신, 군인, 정치인으로서 1475년에서 1476년까지 1년간 조선국 상급 국상 지위를 지냈으며 자(字)는 자준(子濬), 호는 압구정(狎鷗亭)이며, 시호는 충성(忠成)이다. 일찍이 조선 태조 때 학사로 명나라에서 조선이란 국호를 받아들인 개국공신 상질(尙質·12世·문경공)의 손자이자 증 의정부영의정에 추증된 기(起·13世)의 아들이고, 이조참판과 직제학을 지낸 여주 이씨 이척의 외손자이자 대제학 이행의 증외손이다.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성종의 원비 공혜왕후가 따님이며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2300여건이나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세조의 최측근이자 책사로, 세조로부터 나의 장량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계유정난을 주도하여 수충위사 협책정난공신(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



세향봉행 후 기념촬영

이 되고, 수양대군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데 기여하여 동덕좌익공신(同德左翼功臣)이 되었다.

병조판서로 있으면서 여진족의 토벌과 북방의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데 공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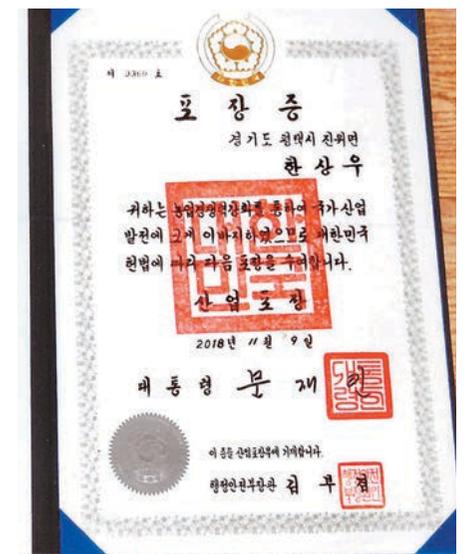
1466년~1467년, 1469년 두 번 의정부영의정을 역임했으며 1457년 상당군(上黨郡)에 봉군되고 1461년 진봉하여 상당부원군이 되었다. 종묘 세조실에 배향됨으로써 종묘배향공신이 되었다.

오가작통법과 면리제(面里制)를 창시하였으며, 이때 만들어진 면(面)과 리(里)라는 행정구역은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다.

## 상우일가 산업포장 수훈

장간공파예하 충의공종중의 상우일가(경기 평택시 진위면거주, 1960년생)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경기도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함으로써 학생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 받아 종원과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축하를 받고 있다.

(충의공종중 총무무회)



이름	금액	이름	금액
동익(문정공파)	50,000	익상(인천시)	50,000
동희(경북 구미시)	50,000	정현(차북)전남 나주	50,000
무농회	50,000	남희(양해공파)	30,000
문수(중국교포)	50,000	주택(충북 청주시)	30,000
문희(공주시)	50,000	만규	20,000
상문(충남 부여)	50,000	성환	10,000
상인(충주)	50,000	재영	10,000
상호(판사공파)	50,000	선교(충성공파회장)	제주3명
윤동(문정공파)	50,000	<b>합 계</b>	<b>23,850,000</b>

# 정과 사랑, 아름다움이 상존한 시조세향일의 풍경

청장년, 특히 가족단위 여성후손들 많이 증가...내년에는 더 많이 오도록 하겠다



##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전국 각지의 청주한문 종현분들께서 물심양면 아낌없이 보내주신 큰 관심과 성원의 덕으로 시조 부군 및 4위 선조님의 기해년 세향을 성황리에 훌륭하게 봉행 하였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종사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좋은 결실로 마무리 잘하시고 가내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청주한씨중앙종친회 회장 한 추 태 배상

# 2019년도 기해년 고려대전 대제 봉행 청주한문의 선조 여섯 분 위패 봉안

始祖 威襄公 · 思肅公 · 西原君 · 文敬公 · 恕齋公 · 夢溪公



양력 10월 15일 화요일,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고려대전에서

2019년도 고려대전(高麗大殿) 대제가 지난 10월 15일(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제 13회째를 맞이하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산에 위치한 고려대전에서 성 · 충현공열사(聖 · 忠賢功烈士)의 공훈을 추모하고 국민과 통일을 기원하는 대제가 전국의 유림단체 및 대전에 봉안된 성(姓)씨 문중 대표와 기관단체,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단법인 고려선양회 주최, 향교 유림 집전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고려대전에는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비롯한 34위(位)의 고려 역대 왕과 64개

성씨 문중의 고려조의 충신(忠臣) · 공신(功臣) 357위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시조 위양공(始祖 威襄公 · 諱 蘭, 사숙공(思肅公 · 諱 渥 · 9세), 서원군(西原君 · 諱 方信 · 10세), 문경공(文敬公 · 諱 脩 · 11세), 서재공(恕齋公 · 諱 藏 · 11세), 몽계공(夢溪公 · 諱 哲沖 · 13세) 등 여섯 분 선조의 위패가 동배향위(東背向位) 화열(火列) 42~47에 모셔져 있다.

고려대전은 고려 500년 역사와 문화를 재현 재조명하고 통일의 의지를 되살리고자 착공 12년만인 지난 2007년 8월 준공식을 가졌으며 4만 1,200㎡의 부지위에 건립되었다.

## 서원군파종회 이사회 개최

길수회장, 서원사 사적비 수립 추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서원군파종친회(회장 吉洙)는 지난 10월 11일 오전 11시 종로3가 소재 한일장에서 길수회장을 비롯 상기회장, 만교감사, 강, 천식, 근준회장 등 회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고 서원사 사적비 수립, 연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 등 종사의 현안문제를 논의 하였다.



길수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길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향각지에서 성황을 이루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전하고 서원군(諱 方信)할 아버지는 문무를 겸전한 훌륭한 분으로 중앙회에서 뿌리공원에 청주한씨 상징 조형물을 개수하면서 방신헌아버지를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으로 각자 하였다. 종친회 모임은 적당하게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서원군파문중은 분기별 년 4회로 정례화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 문중은 수익종재가 없어 회비로 운영함에

어려움이 많지만 서원사를 건립했고 담장을 세우는 등 보완사업도 마쳤다. 이제 당면사항은 서원사 사적비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한 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종 · 지파문중에서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날 이사회를 통해 사적비문안을 확정하였으며, 사적비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 위임한 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결의하였다.

## 소혜왕후 515주기 기신제 제향 봉행



경릉 전경(정자각을 중심으로 왼쪽이 소혜왕후, 오른쪽이 덕종대왕릉)

양력 10월 19일 셋째 토요일, 서오릉 경릉에서

덕종대왕비(德宗大王妃)인 청주한씨 소혜왕후(昭惠王后 · 1437~1504 · 14世)의 제515주기 및 덕종대왕 제562주기 기신제 제향이 지난 10월 19일(토) 정오 경기도 덕양구 용두동 서오릉(西五陵)내 경릉(敬陵)에서 문화재청 주최,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 주관, 고양시 의회 및 고양문화원 후원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우리 청주한씨 문중에서는 상기참 의공과회장이 아헌관으로 제례를 봉행했으며 서원군파문중에서 길수회장, 상기회장, 만교회장, 영학, 대석일가 등 20여명의 후손들이 참사를 하였다.

인수대비(仁粹大妃)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소혜왕후는 세조(世祖) 때 좌의정을 지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諱 確(確)의 따님으로 세조가 대군(大君)으로 있을 때 도원군(桃原君)의 신분으로 있던 덕종과 결혼했으며, 수양대군(首

陽大君)이 왕으로 즉위하고 도원군이 세자(世子)로 책봉되자 19세에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2년 뒤 세조 3년 9월에 세자인 덕종이 급환으로 별세하자 소생인 아들 성종(成宗)이 왕위에 올랐다. 이후 성종 2년 부군이 덕종대왕(德宗大王)으로 추존(追尊)되면서 소혜왕후도 인수대비로 진봉(進封)되었다.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한문과 유교경전에 능통하였으며 불교에 귀의함이 두터워 범(梵) 한(漢) 국(國) 삼자체(三字體)의 불서(佛書)와 조선시대 사대부 여인들의 수신서이자 여성교육의 기본서로 부녀자의 예의범절을 가르친 내훈(內訓)을 저술하였다.

일반적으로 능은 앞에서 보았을 때 왕은 왼쪽, 왕비는 오른쪽으로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이와는 반대로 조성되어있는 경릉은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의 형태로 사적 제198호, 2009년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2019년도 종묘추향대제 제관 봉무

동경 · 도영 · 창하 · 대석일가

지난 11월 2일(토) 문화재청과 (사)종묘 제례보존회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종묘추향대제에 동경(부산시회장), 도영(충성공파)일가, 창하(회양공파)일가, 대석(장도공파)일가가 각각 정전과 영녕전에 제관으로 참여하여 제례를 봉행하였다.

추향대제는 5월 춘향대제와는 달리 널리 알리지 않고 조선시대 나라의 제사라는 순수성에 초점을 맞춰 보다 경건하게 제향 본래의 의미에 더 충실하게 봉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종로에 있는 종묘(宗廟)에서 봉행되며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



좌로부터 도영, 창하, 대석일가

운영회비(9~10월) <span style="float:right">단위:원</span>	
이름	금액
상기 부회장(참의공파회장)	1,000,000
격동 부회장(충남도회장)	500,000
동경 부회장(부산총친회장)	500,000
기환 자문위원(서울 용산구)	400,000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200,000
기천 자문위원(인천 동구)	200,000
상영 자문위원(경기 의정부시)	200,000
성용 자문위원(경기 광주시)	200,000
태교 자문위원(서울 노원구)	200,000
기수 겸임이사(전주시회장)	200,000
상돈 겸임이사(공주시회장)	200,000
병윤 운영위원(충남 태안군)	200,000
상호 운영위원(경기 연천군)	200,000
용구 운영위원(전남 진도군)	200,000
종호 운영위원(영흥공파회장)	200,000
철동 운영위원(충남 당진시)	200,000
철호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00
진수 겸임이사(인천 강화군)	100,000
기덕 운영위원(강원 춘천시)	100,000
만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명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범석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100,000
상분 운영위원(경기 수원시)	100,000
성규 운영위원(서울 구로구)	100,000
영선 운영위원(인천 강화군)	10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100,000
재운 운영위원(광주 북구)	100,000
창상 운영위원(충남 보령시)	100,000
<b>합 계</b>	<b>6,100,000</b>

장학금 납부내역(9~10월) <span style="float:right">단위:원</span>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2237	대구(대전 서구) 대전총친회	1,000,000	1,000,00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000	780,000
<b>합 계</b>		<b>1,020,000</b>	

개인정보비(9~10월) <span style="float:right">단위:원</span>	
이름	금액
근수 자문위원(충남 청양군)	100,000
태수(부산 부산진구)	100,000
두환(충북 청주시)	50,000
명철(서울 성동구)	50,000
설(경남 진주시)	50,000
용규(경북 영천시)	30,000
진택(경기 의정부시)	30,000
동희(충남 보령시)	20,000
두경(전남 나주시)	20,000
두원(강원 영월군)	20,000
면희(서울 서초구)	20,000
복용(경기 남양주시)	20,000
상관 운영위원(대구 달서구)	20,000
상기 부회장(참의공파회장)	20,000
상철(경기 양주시)	20,000
인희 운영위원(경기 고양시)	20,000
재연(서울 성동구)	20,000
정우(세종시 조치원읍)	20,000
춘섭(청한예학회장)	20,000
태식(서울 동작구)	20,000
재규(서울 용산구)	10,000
<b>합 계</b>	<b>680,000</b>

단체정보비(9~10월) <span style="float:right">단위:원</span>	
이름	금액
공주시총친회	200,000
<b>합 계</b>	<b>200,000</b>

무강왕릉수호대책위원회 헌성금(9~10월) <span style="float:right">단위:원</span>	
이름	금액
추태 중앙회장	1,000,000
<b>합 계</b>	<b>1,000,000</b>

## 서울·수도권 청장년회 정기 산행

### 태조산에서 천안일가와 친목교류

서울·수도권청장년회(회장 상남)는 지난 10월 13일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천안소재 태조산으로 10월의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높이 421m. 고려 태조가 이곳에 머물렀다 하여 태조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산의 형성은 화강암과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재 조림이 잘 되어 계곡을 따라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이 산에 얽힌 내용을 보면, 고려 태조가 930년(태조 13) 후백제 신검(神劍)과 대치할 때 술사 예방의 인도로 이 산에 올라 군대의 주둔지가 될 만한 곳을 살폈다고 한다.

태조가 산신제를 지냈다는 제단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왕이 머물렀다는 유왕골(留王谷)·유려왕사(留麗王寺) 등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한다. 산 중턱에 천년고찰 성불사(成佛寺)가 자리하고 있으며, 산정에는 각원사(覺願寺)가 있고 그 옆에 남북 통일기원 청동대불(南北統一祈願靑銅大佛)이 있는데, 이 대불상은 1977년 조성된 좌불로서, 좌대의 지름이 10m, 좌대와 불상 전체높이가 14.2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좌불상이다.

특별이 당일산행에는 격동충남회장과 석전천안회장을 비롯한 많은 일가분들이



함께 환영해 줌으로서 친목교류를 겸한 뜻 깊은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바쁜 가운데 산행안내와 식사, 기념품까지 준비해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격동회장과 석전회장 등 천안의 일가분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한편 지난 11월에는 서울의 명성이자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도봉산을 찾아 정기산행을 실시하였다.

## 한인산악회 창립 23주년 기념 산행



한인산악회(인천종친산악회, 회장 태호)는 지난 9월 10일(화) 산악회 창설 23주년을 맞아 기호, 상기, 창섭, 관 회고문을 비롯 천식인천회장, 태호회장 등 회원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설악산으로 뜻 깊은 기념 산행을 다녀왔다. 한인산악회는 종원의 건강 증진과 친목도모, 애종정신을 함양하고 각지의 관광을 통해 역사와 지리를

탐구하며 자연보호와 자연 사랑을 목적으로 1996년 9월 용봉산에서 창설(인천종친회장 기호)하여 현재까지 제주도와 울릉도 등 전국 244개 지역을 산행(매월 두 번째 화요일)하였다. 당일 기념산행을 빛내주시고 협찬을 해주신 많은 회원분(기호, 창섭, 상기, 관 회, 천식, 태호, 창남, 진석)들께 감사드린다. (산악회장 태호)

### 중앙총친회 계좌번호 안내

- 회비 · 헌성금 · 증보대 - 국민은행 009901-04-016841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족보 · 수단금 -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장학기금 출연 - 국민은행 009-25-0015-377 **재단법인청한장학회**

### 중앙총친회 사칭에 “절대로 속지마십시오”

중앙총친회는 종사보감 등 책자의 구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 이청득심(以聽得心) · 역지사지(易地思之)

## 소통(疏通)은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

이청득심이란 귀를 기우리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다는 사자성어다.

귀를 기우리다보면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린다. 중국 노(魯)나라 왕이 바닷새를 비궁(闕宮)안으로 데려와 술과 육해진미(陸海珍味)를 권하고, 풍악과 무희 등 웅숭한 대접을 했지만, 바닷새는 어리둥절해 슬피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아 사흘만에 죽었다는 일화(逸話)에서 전해 오고 있는 글이다. 장자(莊子)는 노나라 임금의 이야기를 통하여,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태면 노나라 임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과 음악이 바닷새에게도 좋을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장자가 통찰한 것은 머릿속에 박힌 고정관념과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만들어 낸 가식과 욕망에 근거한 이기심을 스스로 발견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숭고한 의미와 비유하자면, 장자는 가식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소통할 때 천지 만물이 조화를 이루고 얼룩진 혼탁한 시대에 소통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방법

을 제시한 것이다.

역지사지란易地즉개연(易地則皆然)이란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이는 ‘맹자(孟子)’의 이루편(離婁編) 나오는 말로 중국 하(夏)나라 우(禹) 임금과 후직(后稷)에 대해 “우 임금은 천하에 물에 빠지는 이가 있으면 자기가 치수를 잘못해 그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후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자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해 그가 굶주린다 생각하여 백성 구제를 급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하나라의 시조 우는 요(堯) 임금 치세 때 황하의 홍수를 잘 막아 왕위를 선양 받았고, 후직은 중국에서 농업의 신으로 숭배 받았으며, 안회(顔回)는 공자의 제자로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정도의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지켰으며 이 세 사람은 모두 공자에게 어질다는 평을 들었다.

맹자는 “우와 후직, 안회는 모두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서로의 처지가 바뀌었더라도 모두 똑같이 행동했을 것(禹稷顔回同道 … 禹稷顔子易地則皆然)”이라고 평하였다. 곧, 맹자는 안회도 태평성

대에 살았다면 우 임금이나 후직처럼 행동했을 것이며, 우 임금과 후직도 난세에 살았다면 안회처럼 행동했을 것이라며 “처지가 바뀌면 모두 그러했을 것”이라는 뜻으로 ‘역지사지(易地則皆然)’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그 뜻이 확장된 것이다. 네가 내 입장에 서서 그리고 내가 네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 성어의 뜻이다. 무슨 일이든 자기에게 이롭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 ‘아전인수(我田引水)’와는 대립된 의미로 쓰인다.

역지사지가 잘되는 사회와 조직이라면 갈등(葛藤)은 없을 것이다. 갈등은 좁고 등나무를 이르는데 좁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가는 성질 때문에 항상 서로 얽히지만 한다고 한다. ‘내로남불’이라는 시쳇말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인 말로 아주 자기중심적이 사고를 표현하는 말이다. ‘너도 옳고 나도 옳은’ 조선 초기 황희(黃喜)정승의 자세가 언뜻 주관이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할 줄 아는 자세인 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소통(疏通)’이라 생각된다.

소통이란 ‘막힌 것을 터버린다’는 소(疏)의 개념과, 사람 간에 연결을 뜻하는 통(通)이란 개념의 합성어다.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의사전달을 넘어서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바깥쪽이 아닌 안쪽에 있다’는 독일철학자 헤겔의 말처럼, 다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어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자신의 병법(兵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병사와 타인의 의견도 진심으로 경청할 줄 알았던 겸손한 자세와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에, 성웅(聖雄)이 되었던 것이다.

## 청한산악회 10월·11월 정기산행

### 조망이 아름다운 「선자령」과 대구의 진산 「팔공산」으로

청한산악회(회장 삼랑)는 지난 10월 20일(일) 회원 약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풍이 아름답고 탁 트인 조망이라는 가을산행의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곳, 강원도 평창군소재 선자령으로 정기산행을 다녀왔다. 강릉과 평창의 경계에 있는 선자령은 해발 1,158m로 높지만 산행기점(대관령휴게소)이 840m로 정상과의 표고 차 318m를 긴 능선을 통해 산행함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정상에 오르면 단풍으로 물든 가을산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강릉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등 전망이 일품인 곳이다. 계곡이 아름다워 선녀들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하고 놀다 하늘로 올라갔다해서 선자령(仙子嶺)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11월의 정기산행은 회원 45명과 함께 대구의 진산(鎭山)인 팔공산 갖바위 일원으로 다녀왔다.

높이 1,192m의 팔공산은 계곡이 아름답고 산봉이 웅자하며, 사적이 많아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동봉과 서봉의 줄기는 칠곡, 군위, 영천, 경산, 구미까지 뻗어 있으며 중악(中岳)·부악(父岳)·공산·동수산(桐藪山)으로 불렸다고도 하는 팔공산은 산세가 웅장하고 하곡이 깊어 예로부터 동화사, 과제사,



은해사 등 유서 깊은 사찰과 열불암, 부도암, 비로암 등의 암자가 들어서 있고, 은해사거조암영산전을 비롯한 국보와 보물, 사적과 명승지 외에 수백여 종의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갖바위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특히 이날 산행에는 중앙회 연동, 동수, 동경,

동석부회장이 원거리에서 함께하였고 태락대구경북회장은 안내와 더불어 중식과 기념품, 여흥의 시간까지 준비하고 경비를 부담해 주시므로서 회원들로부터 큰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지면을 통해 태락회장과 원거리에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중앙회부회장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알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 있습니다.
2. 따라서「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시조탄생유지 淸韓閣 전경

### 중진고문 간담회 개최

종사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지난 10월 30일 중앙회회의실에서 중진고문의 간담회 모임을 개최하였다. 추태회장은 자리를 주선해 주신 갑수명예회장과 참석해주신 고문분들께 감사사를 전하고 무강왕릉 수호보전을 위한 업무추진, 장학기금 확충추진 및 운영사항, 유물 유적의 관리방안 등 주요 종사현안에 관한 설명을 하고 원로분들의 지도편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갑수명예회장과 고문분들은 추태회장의 노고를 격려하고, 매사 철저한 준비와

대처로 차질 없는 종사 운영에 만전을 당부하는 한편 여러 민감한 사안으로 어려운 시기에 종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을 보내자는 격려의 말씀을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갑수명예회장(사진 왼쪽 중앙), 기호고문(앞줄 우측), 추태중앙회장, 길수서원군문중회장(앞줄 왼쪽), 상완(전)연세대대부총장(뒷줄 왼쪽)이 자리를 함께하였으며 선교회장과 준석회장은 부득이한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했다.

### 창섭 충북부지사 예방 및 환담

종사 현안 및 발전방안 등 논의



중앙중친회 추태회장(사진 중앙)은 지난 11월 4일 창섭충청북도행정부지사(사진 우측)를 세 번째 예방하고 시조부군세향봉행 행사를 빛내주심에 감사사를 전

한 후 청한각의 영동군 지방문화재 지정 및 충북소재 유물·유적에 대한 관리방안 등 종사 현안과 발전을 위한 의견과 환담을 나누었다.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분당지부장 및 관계자

중앙중친회 내방 및 환담



지난 11월 1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평화대사인 분당지부장 이영진목사(사진 앞줄 우측)와 유한섭목사(사진 우측 중앙), 김인숙총무가 중앙중친회를 내

방하여 추태회장과 환담 후 향후 종원의 송조돈독과 소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무농회 신임집행부 중앙회 내방 및 환담



지난 11월 무농회 신임 창하회장 및 집행부 임원분들이 중앙중친회를 내방하여 추태회장과 상호 덕담 및 환담 후 종사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농회는 지난 11월 18일 정기회의를

통해 신임회장으로 창하(회양공파, 사진 앞줄 오른쪽)일가를 선임하였으며 전임 회장(동훈,규동)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부회장에 대석(장도공파)일가, 총무에 경(판사공파)일가를 선임하는 등 집행부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였다.

### 희망의 천년 마을 방서동 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방서동 도시재생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대머리) 변영회 및 노인회, 방서동 도시재생주민 협의회는 지난 11월 9일(토) 오후 2시 방서동 방정샘 잔디밭에서 '희망의 천년 마을 음악회'를 열고 수많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흥겹고 신나는 시간으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방서동의 도시재생사업 준비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음악회에는 방서동 출신의 한숙동(색소폰, 트럼펫), 한

윤옥(성악가 소프라노), 김수연(색소폰, 트럼펫) 그리고 아랑고고 장교, 초대가수 문소리가 출연해 뜻 깊은 천년 마을 음악회로 주민들의 뜨거운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방서동은 익히 아는바와 같이 유서 깊은 청주한씨의 본향으로 예부터 수많은 명사들을 배출한 마을로 그 명성이 자자하게 유명한 지역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 2019년도 2기 청주시도시재생대학 졸업발표에서는 7개 동 중 방서동(대머리)이 열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1등 으뜸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앞으로도 방서동이 청주를 대표하는 더욱 살기 좋고 인심 좋은 품요로운 마을로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한다. (방서동 이랑공파 노동일가 송고)

### 중앙회 이사회 개최 안내

중앙중친회 연말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해당 임원분들의 많은 참석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수) 11:00
- 장소 : 중앙중친회 회의실
- 의안
  - 1) 2020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 2) 종사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사항
  - 1) 참석대상 : 중앙회 부회장(회장단) 및 겸임이사, 감사
  - 2) 안내문은 별도 발송 예정임
  - 3) 참석 여부를 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720-6370) "끝"

2019년 11월 29일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회장 한 추 태